

朝鮮前期 對日 使行文學에 나타난 日本認識

이 채 연*

차 례

- | | |
|-------------------------------|-------------------|
| I. 머리말 | 1. 존화주의적 화이론 |
| II. 조선전기 일본 사행과 사행록 | 2. 선입관에 따른 즉물적 판단 |
| 1. 조선전기 대일 사행의 성기 | 3. 대일 인식 준거의 주관성 |
| 2. 사행록 개관 | IV. 마무리 |
| III. 조선전기 대일 사행록에 나타난
일본인식 | |

I. 머리말

使行이란 국가의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오는 관원의 공식적인 업무 수행을 말한다. 이 일의 책무은 사신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들의 일차적인 임무는 국가의 공적인 임무 수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행의 모든 일정은 대부분 정해진 관례에 따라 이루어지는儀典적인 면이 강하지만, 사행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 부산여대 국어교육과 교수

이국 풍물을 새로이 접하게 되는 여행이 될 수 있다. 사신은 국가의 공적인 업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체험 세계를 확대하고 다른 세계에 대해서 새로이 느낄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행 체험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있다면 공적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으나, 이국에 대한 개인적 감동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문학적 자료도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봉건사회에서 이국으로의 여행은 매우 특별한 체험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신으로 파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¹⁾ 이런 점에서 사신으로 파견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이것의 문학적 형상화는 우리문학에 있어 소재 공간의 지평확산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조에서 사신이 파견된 지역은 중국, 일본, 유구, 여진, 안남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빈번한 왕래가 있었던 지역은 역시 중국이었으나, 일본의 경우도 적지 않은 수의 사신이 다녀왔다. 일본 사행의 경우, 횡수는 후기에 비해 전기가 월등히 많은 편이나 사신들이 남겨 놓은 소위 사행록은 후기가 더 많다. 현전하는 조선전기의 사행록은 3편 정도가 전할 뿐인데, 그것도 통신 사일기에 비해서는 문학적 가치가 떨어지는 편이다. 본고에서는 사신들이 사행에서의 개인적 감동을 기록한 글을 使行文學²⁾이라고 칭하면서,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통해서 조선전기의 일본인식이 어떠하였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학계의 사행문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선후기 통

1) 조선조에서의 이국 체험은 크게 공식적인 경우와 비공식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비공식적인 체험의 경우, 해초와 같이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자발적인 경우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따른 표류기와 전쟁 중에 겪게 된 포로 체험을 기록한 포로기 등이 있다. 표류기에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겪게 되는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의 심리상태나 이국의 견문을 통한 문화적 충격 내지는 새로움에 대한 동경 등이 묘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윤치부(『한국 해양 문학 연구』, 학문사, 1994) 참조. 포로체험기 또한 비록 적국에서의 체류이지만 타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채연(『임진왜란 포로실기 연구』, 박이정출판사, 1995) 참조. 그러나 비공식적인 해외체험을 기록한 글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비해 사행록은 문장기술의 작법이 패턴화되어 있다는 약 점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체험의 다양성을 느끼게 한다.

2) 엄경흠, 『한국 사행시 연구』, 1993, 동아대 박사논문, 3쪽.

신사행에 집중되어 있었다.³⁾ 그 이유는 조선후기의 사행이 정치적인 면보다는 문화교류적인 측면이 강조된 일면이 있어 내용이 상당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또 현전하는 자료의 양도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일 사행문학의 맥락을 정확히 집기 위해서는 비록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고 자료가 영성하지만 조선전기의 사행록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II. 조선전기 일본사행과 사행록

1. 조선전기 대일 사행의 성격

조선은 건국 초부터 대외정책을 事大交隣에 두었기 때문에 중국과는 사대의 관계를, 일본은 비롯한 유구, 여진과는 교린책으로 응하면서 주변국과의 긴장감을 해소하려 했다. 이러한 조선의 사대교린책은 명나라가 추구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적 국제질서 재편에 편입되어 왕조와 국가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⁴⁾ 조선의 중국에 대한 사대는 그 이전부터 형성되어온 동아시아의 보편적 질서이긴 하지만 명나라의 건국 이후부터는 책봉체제와 결부되면서 표면적으로는 그 관계가 더욱 종속적인 것으로 변해갔다.

한편, 조선이 중국과 사대관계를 설정하기로 한 것은 명나라의 중화적 세계질서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이 의도한 외교질서를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조선은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 교린책을 펴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이 일본과 교린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對等관계의 교린이라고 볼 수 있

3) 이에 대한 연구는 김태준, 소재영, 이혜순, 이원식 교수에 의해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시작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이동찬(『18세기 대일 사행체험의 문화적 충격』, 『한국문학논총』15집, 한국문학회, 1994), 한태문(『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5)과 김성진(『조선후기 통신사의 기행시문에 나타난 일본관 연구』, 『도남학보』 15집, 도남학회, 1996)에 와서 문학적인 입장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지성의 샘, 1994, 15-16쪽.

지만, 이면에는 왜구 준동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쓰시마 및 구주지방 대명과의 羈縻교린이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것이었다.⁵⁾ 이러한 현상은 조선의 대일본 외교 상대가 이원화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이유는 교린의 주목적이 왜구의 금압에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역성혁명을 통해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고 국가의 지도이념 및 토지제도를 바꾸는 등 전대와 다른 개혁조치를 취하면서 내부적인 변화를 피하였지만 대외사정, 특히 대일본의 사정은 고려조와 변한 것이 없었다.

신라시대부터 왜구의 출몰은 역대 왕조에 있어 가장 골치아픈 일이었다. 고려후기에 와서 이러한 사정은 더욱 빈번하고 대규모화되어 삼남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 지역이 노략질의 대상이 되었다.⁶⁾ 공민왕 때(1366)에는 金逸, 金龍을 일본으로 보내 당시 실력자인 足利義詮에게 왜구방지에 관한 약조를 받기도 하고, 공양왕 때(1390)에는 경상도 원수 朴威로 하여금 쓰시마를 정벌하게 하는 등 강온양면의 정책을 폈지만 왜구의 침입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에 와서도 그대로 계승되지만 강경책보다는 사신의 파견을 통한 유화적인 해결 노력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성계는 여말에 왜구 토벌의 공으로 명망을 쌓기 시작하여 이를 토대로 왕위에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왕으로 즉위한 후에는 원년부터 승려 覺鑊을 특사로 파견한 것을 비롯해 모두 7차례에 걸쳐 사신을 일본에 보내는 등 유화적 해결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했다.⁷⁾ 일본측에서도 답방의 형식으로 태조 연간에만 24차례에 걸쳐 회례사가 다녀갔다. 그 결과 왜구가 여전히 출몰하기는 하였으나 여말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오히려 歸化倭人이 늘어나는 등 다소의 진전을 보게 되었다.⁸⁾

이러한 대일 교린책의 결과 태조 원년에서 선조 32년까지 약 69회에 걸쳐 사신이 일본에 파견될 수 있었다.⁹⁾ 이 수는 조선후기의 12차례 통신사행에 비해 양적으로 훨씬 많은 횟수이다. 그러나 사행단 일행의 규모나 최

5) 손승철, 앞의 책, 16쪽.

6) 나중우, 『한국중세대외교섭사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92 참조.

7) 하우봉, 「조선전기 대일관계」, 『강좌 한일관계사』, 현암사, 1994, 264-268쪽.

8) 이에 대해서는 이현중, 『조선후기 대외 교섭사 연구』, 한국연구원, 1964를 참조.

9) 강주진, 「해행총재 해제」, 『국역 해행총재·I』, 민족문화추진회, 1967, 7-10쪽.

중상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통신사일행 보다 적었고 상대의 격도 낮았다. 우선 사행단의 규모는 100명 내외가 보통이었고 사행단의 명칭도 일본 국왕이나 막부 상대의 통신사, 회례사에서부터 왜구의 통제를 요구하기 위해 대마도주나 九州探題에 보내어진 敬差官, 垂問使, 體察使 등 다양한 편이었다.¹⁰⁾ 이는 조선전기 사행이 조선후기 통신사행과는 그 성격 면에서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경우 상호필요에 의한 대등한 관계의 교린에 입각해 있다면, 조선전기의 경우는 기미교린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성격 때문에 사신으로 파견된 사람은 중국 사행에 비해 내키지 않은 발걸음을 옮겼을 것이고, 그 결과 조천록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사행록이 남게 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는 일본에 대한 전통적이 倭意識이 의식의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으로, 미개국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여행이란 새로운 것에 대한 충격과 감동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야만시 하는 집단에 대한 새로움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습속 정도로 인식될 뿐, 기록의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조선전기 대일 사행은 왜구의 금압이라는 다분히 단일한 목적만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기에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겸하고 있던 조선후기 통신사와 다른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파견된 사행단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에 따르면 대마도의 경우에만도 최소한 1개월이 소요되며 구주지역의 경우 약 8개월, 그리고 본토의 경우에는 약 1년이 소요되었다.¹¹⁾ 시간적으로 볼 때 중국사행에 비해 훨씬 긴 기간이며, 행로 또한 해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부담도 더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험하고도 긴 기간을 참고 일본에 파견되는 목적은 오직 왕명의 전달에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는 타국에서의 견문과 감회도 적지 않았을

10) 이는 일본 본토에 파견된 사신규모인 바 대마도의 경우는 30명 남짓에 불과했다. 이렇다 하더라도 조선후기 통신사행단 500명에 비할 때 매우 적은 수라 할 수 있다.

11) 신숙주가 쓴 『해동제국기』의 「일본국기」 <道路里數>에 보면 당시 부산에서부터 일본의 각 지역에까지의 거리를 표기해 놓았는데, 이를 날짜의 개념으로 환산할 때 위와 같다.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3편의 사행록은 문학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이 복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사행록 개관

조선조에서 사신으로 파견되는 인물은 외교임무를 띤 실무적 인물보다는 학식과 문재를 겸비한 학자, 문장가나 시인이 많았다. 이처럼 문필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 파견된 것은 상대국가 사람들과 교류시 筆談을 통해 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함에도 목적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정을 기록하여 국내에 보고하게 하기 위함에도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에서는 국내의 정치적 문제 해결과 외교적 목적의 수행을 위한 관각문신의 확보와 관각문학의 제작이 필요하였다.¹²⁾

사신들이 남긴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행사의 사무적인 실무를 맡아보던 서장관이 사행의 임무를 마치고 조정에 제출한 ‘牘錄’이 있고, 둘째는 그 사행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개별적으로 기록한 ‘使行錄’이 있다. 등록이 일정한 형식을 갖춘 공식문서의 성격을 띤 것이라면, 使行錄은 기록자의 개성과 세계관에 따라 자유스럽게 쓰여진 것이다. 使行錄 중에는 노정, 견문, 학적 교류 등 구체적 사실을 기록한 기사체가 있고, 개인적인 술회를 서사시 혹은 서정시로 읊은 것도 있다. 문자는 일반적으로 한문으로 되어 있으나, 한글로 된 가사작품도 있다. 이들 사행록은 조선의 관점에서 이국을 바라본 일종의 ‘風物記’로 등록보다는 오히려 상대국의 실정이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문학적 형상화도 뛰어나다.

중국에 관한 사행록은 명과 청으로 이원화되어 朝天錄과 燕行錄으로 불리고 있다. 현전하는 작품의 수만 하더라도 조천록이 40여종, 연행록이 60여종에 이른다.¹³⁾ 조천록의 경우 전통적인 중화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지만, 연행록은 탈중화적 색채가 강한 편이다.

12) 김성언, 「한국 관각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2쪽.

13) 조천록과 연행록의 목록은 소재영, 김태준이 편한 『여행과 체험의 문학』-중국-(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에 부록으로 전한다.

일본에 관한 사행록으로는 임진왜란 이전의 것으로는 고려시대 기록물인 鄭夢周의 <鄭圃隱奉使時作 12首>가 있고, 조선조에 와서는 宋希環의 『日本行錄』¹⁴⁾을 비롯하여 辛叔舟의 『海東諸國記』,¹⁵⁾ 金誠一의 『海槎錄』(1590년) 등이 있을 뿐이다. 조선전기의 사행 횡수가 69회에 달한 것에 비할 때 현전하는 사행록의 수는 매우 영성한 편이다. 그 이유는 조선전기의 사신들 중에는 李藝와 같이 오늘날의 전문 외교관에 해당하는 실무적 인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한 사람이 여러차례 파견된 경우도 있었고 대상 목적지도 대마도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비할 때 조선후기의 사행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의 사행록이 전하고 있다. 壬辰倭亂 이후 1607년에 呂祐吉을 정사로 한 修交回答兼刷還使의 일행으로 일본을 다녀온 慶暹의 『海槎錄』을 비롯하여 12차례의 통신사 파견 때마다 남겨진 해행기록물이 통신사일기란 이름으로 『해행총재』에 수록되어 전한다.

鄭夢周의 『鄭圃隱奉使時作』은 그가 우왕 3년(1377) 왕명을 받고 일본九州探題로 있던 今川了俊을 만나 고려인 포로를 쇄환하고 돌아온 10개월 간의 일본 기행을 시 12수로 적은 글이다. 이 시들은 타국에서 봄을 맞아 고국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심정과 왕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말겠다는 신하로서의 비장미를 담고 있는 개인 서정의 정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에 관해서는 지엽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매우 우호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풍속을 이해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왜구문제와 포로쇄환에 매우 협조적이었던 今川了俊의 태도에 영향받은 바도¹⁶⁾ 적지 않

-
- 14) 이 책은 宋希環이 세종 2년(1420년)에 會禮使의 임무를 띠고 일본을 다녀와서 지은 것인데, 대부분 詩로 엮여져 있다. 이 책은 그 뒤 조선에서는 전하지 않던 것을 鄭慶得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왜승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필사하여 조선으로 가져왔다. 정경득의 『만사록』 중 1593년 12월 1일의 일기에 따르면 일본의 上關에서 노승당의 시를 보았다고 적고 있다. 이를 그 후손들이 입수하여 간행하였다.(趙平, 『日本行錄』 序), (정경득, 『만사록』)
- 15) 申叔舟는 직접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왕명에 의해 세종 2년(1471)에 이 책을 撰進하였다. 이 책은 조선 초기와 일본의 무로마치(室町幕府)시대의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에 있어 가장 정확하고 기본적인 자료로 이용되었다.(이재호, 『해동제국기』 해제.)
- 16) 金承禹, 『紀行詩文集』에 나타난 우리나라 歷代文人·學者들의 日本觀 研究, 『德誠語文學』7집, 덕성여대 국문학과, 1992, 149-154쪽.

았을 것으로 보인다.

『日本行錄』은 宋希濤이 세종 2년(1420) 回禮使의 임무를 띠고 약 10개월 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겪은 소감을 적은 시 227편이 수록된 기행시집이다. 여기에 수록된 시는 그날 그날의 사건 중 가장 인상적인 사건을 소재로 하여 날짜별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시를 통해 그날의 중요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시집에는 출발에서 귀환할 때까지의 견문과 경험이 두루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일본의 풍물과 풍속, 경치, 제도 등이 개인적 정서와 어우러져 있어 그의 일본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송희경은 36세 때인 태종 11년(1411)에 서장관의 자격으로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바 있기 때문에 그의 일본 사행은 두 번째의 이국체험인 셈이다.

송희경이 일본에 사신으로 가게 된 것은 李從茂의 대마도정벌(1419)이 있던 다음 해로, 室町幕府의 사신이 來朝한 것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일본은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하여 일본 본토를 정벌할 것이라는 소문에, 經籍을 구한다는 구실로 사신을 파견해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고자 했다.¹⁷⁾ 이런 상황 속에서의 답방이었기 때문에 송희경의 일본 사행에는 일본에 대한 험의 우위라는 우월적인 사고가 그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일본측에서 요구한 대장경과 선린관계 유지를 바라는 세종의 친서를 갖고서는 조선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소문이 와전된 것임을 설명하고 돌아왔다. 송희경의 『일본행록』은 1420년 1월 15일에서 10월 25일 왕에게 복명할 때까지의 일본 사행체험을 시로 표현한 것이므로, 시를 통해서 그의 일본관을 살필 수 있다.

『海東諸國記』는 성종 2년(1471) 申叔舟가 왕명에 의해 일본 본국, 九州, 對馬島, 壹岐島, 琉球國¹⁸⁾까지를 망라한 해동 제국의 지세, 국정, 交聘往來, 연역, 사신접대의 절목 등을 기록하여 교린의 경계를 명시한 것으로, 그 당시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역저이다. 이 책은 일본 천황의 내력과 제통을 설명하고 있는 「日本國紀」와 일본의 풍속을 간단히 설명하

17) 宋旒, 「老松堂日本行錄家藏」

18) 이들 지역은 현재는 일본으로 통합되어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室町幕府의 통 제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국가형태를 띠고 있는 諸國이었다.

고 있는 「風俗」, 계량 단위를 설명한 「道路里數」, 일본의 국토를 소개한 「八道 六十六州」와 「琉球紀」와 같은 人文地理書의 편제를 가지면서도, 「朝聘應接記」와 같이 외교관례와 사례를 모은 外交儀禮書의 성격도 띠고 있다.

신숙주는 세종 25년(1443)에 下孝文과 같이 서장관의 자격으로 경도, 대마도, 구주 등지를 다녀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해동제국기』에 실린 일본의 실상은 상당부분 그의 실제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에서 전래한 문헌과 往年의 견문, 禮曹에 管掌된 기록 등을 상당부분 참작¹⁹⁾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본의 실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점은 『해동제국기』 서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대저 이웃 나라와 修好通問하고 풍속이 다른 나라 사람을 安撫 접대할 적엔, 반드시 그 실정을 알아야만 그 예절을 다할 수 있고, 그 예절을 다해야만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옛 典籍을 상고하고, 보고 들은 것을 참작하여, 그 나라의 地勢를 그림 그리고 동시에 世系の 원류와 風土의 숭상한 바와, 또한 우리나라의 應接한 節目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편집하여 한 책을 만들어서 올립니다.²⁰⁾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해동제국기』는 일반적인 사행록과는 달리 가능한 한 개인적인 편견이나 감정을 절제한 채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본에 관해 서술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책을 “이웃나라와 修好通問”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교본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의 의지 때문인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예절에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대를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교린책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만 해도 조선은 일본에 대해 문화적인 면은 물론 군사적인 면에서도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위에 있는 힘을 바탕으로 교린외교에 힘쓰는 것이 무력에 의한 국력쇄진보다 더 효과적인 대일정책이라고 본 것이다. 신숙주는 임종시에 성종에게 진언하기를 “일본과 失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일본을 비록 倭로 평가하는 시대였음에

19) 李載浩, 『海東諸國記 解題』, 『海行摠載』1, 民族文化推進會, 59쪽.

20) 申叔舟, 『海東諸國記』序.

도 불구하고 가능한 대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이런 그의 태도 때문에 『해동제국기』에 나타난 일본관은 전통적인 화이관이 상당히 희석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서술은 보고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어 문학적 체취는 열은 편이다.

『海槎錄』은 金成一이 임란 직전인 1590년 봄에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이듬해 2월에 귀국할 때까지의 일본 체험을 시와 서찰로 엮어 놓은 사행록이다. 당시의 사행은 일본의 조선 침공의 조짐을 탐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김성일의 귀국 후 복명은 큰 과오를 저지른 셈이 된다. 함께 떠난 정사 黃允吉, 서장관 許篈은 일본의 침략이 곧 있을 것이라 했지만, 학봉은 이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해사록』은 전운이 감돌던 미묘했던 시기의 동북아 정세를 김성일이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보았는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 사대부의 눈에 비친 일본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외 李藝의 『鶴城實記』가 있으나, 이 글은 이예가 시조인 鶴城李氏 대동보에 실려 있는 것으로 후손들이 쓴 그의 행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의 일본관을 살피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고는 위의 사행록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전기 대일본 인식이 어떠하였는가를 살필 것인 바, 일차적으로는 위의 세 책에 나타난 개인적인 대일 인식을 살펴보고 나아가 조선후기 통신사행 이전에 기록된 포로실기와도 비교하여 볼 것이다. 임진왜란은 조선의 기존 체제를 송두리 채 흔들어 놓은 역사의 분수령일 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의 관계 정립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다. 당시 조선 포로들은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상당 기간을 체류하였기 때문에 사신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일본을 이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행록에 투영된 일본인식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조선전기 대일 사행록에 나타난 일본인식

1. 존화주의적 화이론

대일 사행록에 나타난 공통적 현상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일본에 대해 즉물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결과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신숙주의 『해동제국기』를 제외하고는 전후기 사행록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봐서 사행록의 한 특성으로도 이해된다. 어떤 사물을 이해하려는 인식의 틀이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印象的인 요인에 의해 먼저 규정된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그 인상의 결과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인상 이전에 어떤 공통의 先驗的 知識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대일 사행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이 바로 일본에 대한 集團的 先驗性이라 할 수 있다. 즉 고래로부터 일본을 어떤 시각에서 인식하고 또 이해하고 있었나 하는 점이다. 집단적 선형성은 한 개인의 실제적 경험에 앞서 잠재적 지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파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일 사행문학에 나타난 일본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은 이러한 토대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선조 대일 사행은 시대에 따라서 다소의 정치환경의 변화가 있기는 했으나 대상과 사행의 노정, 파견목적, 그리고 일본에 대한 집단적 선형성에 있어 유사점이 많다. 특히 조선전기의 경우 사신들 스스로 조선이 일본에 대해 상대적 힘의 우위에 있다고 믿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록 표면적으로는 대응한 교린을 표방했지만 이면에는 기미교린적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조선의 사대를, 조선에 대한 일본의 사대의 관제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기준은 공자가 설파한 禮가 기준이 되었고 이를 국가 간에도 적용시켜 예의 우열에 따라 상하관계를 규정하였던 것이다.²¹⁾ 따라서 당시 사신들은 일본에 대한 전통적인 왜의식 깊이 갖

21) 유권중, 『공자사상의 발견』, 민음사, 113-116쪽.

고 있었고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을 바라 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었던 인물은 김성일이었고, 이는 그의 『해사록』 전편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특히 禮를 중시하였고 이것을 준거로 하여 일본을 바라보았다. 첫 기착지인 대마도에서 대마도주가 國分寺 연회를 베풀면서 사신들 뒤에 가마를 타고 들어왔을 때, 김성일은 모욕을 당하였다고 뛰쳐 나가고 許篈 또한 나중에 나간 일이 있었다. 그때의 기분을,

스스로 생각하니 사신이 되어와서
조그마한 추장에게 욕을 보았다
이것이 어찌 일신에 관계된 일이라
나라의 욕됨이 견줄 데가 없다네

自念杖漢節
見辱么麼酋
茲豈關一身
國辱難比侔²²⁾

라고 표현하고 있다. 뒷날 대마도주가 결례를 인정하고 가마꾼을 목베고 사죄했음에도, 김성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옛 사람이 오랑캐를 대우하는데 있어 반드시 은혜와 신의로 회유하여 안정시켜야 한다고 하였지만 … 가장 엄격하고 조심하여 한 것은 體貌보다 더한 것이 없다”²³⁾고 생각한 그의 도덕적 결벽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그는 禮의 유무에 따라 華와 夷가 규정된다는 전통적 화이관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측의 무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대마도는 조선에 대해 藩臣으로서 대대로 토공을 바치고 복궤에 머리를 조아려왔기 때문에 학봉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다.²⁴⁾

또한 그는 왜경에 들어온 지 2달이 지났지만, 東征을 끝내고 돌아온 풍신수길이가 만나주지 않자 그 기분을, “더럽도다, 거치른 오랑캐 풍속이여//信義 원래 소홀히 여기네//이웃과의 교린을 무시하여/사신을 감히 멸시하네//빈 산중에 버려두고/우리를 접견할 뜻이 없네//禮가 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도리어 궁궐을 자랑하네//”²⁵⁾ 라 하여,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

22) 『海槎錄』, 「對馬島記事」.

23) 『海槎錄』, 「書書狀官答」.

24) 이우성, 「풍신수길정권과 학봉의 해사록」, 『학봉의 학문과 구국활동』, 학봉김성일선생 순국 사백주년 기념사업회, 1993, 250쪽.

25) 『海槎錄』, 「有感」.

한 심한 모욕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김성일이 일본을 ‘蠻’으로 표현한 것은 비록 조선이 표면적으로는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언제나 시혜국의 입장에 있다는 문화우월주의적인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풍속도 ‘蠻俗’으로만 이해했고, 민족성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임란 이전의 대일본관은 김성일에 이르러 가장 부정적으로 묘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성일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일본측의 태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들은 풍신수길의 일본 통일 이후, 조선의 침공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의 사신에 대해서 과거처럼 예를 갖추어 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이 체모를 중시하는 김성일을 더욱 자극했을 수도 있다.

일본에 대한 화이관이 『해동제국기』나 『일본행록』에서는 『해사록』에서처럼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않지만 일본에 대한 표현을 奴나 倭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신숙주나 송희경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통적인 화이론은 임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임란을 기점으로 하여 특히 강하게 드러났고, 임란이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까지도 계속되었다. 申維翰의 『海遊錄』에는 일본을 왜국으로 보는 조선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조선에서 일본을 왜국으로 부르는 이유는) 알기 쉬운 것으로 일본이 양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당신이 본 우리 나라 문집이 누구의 저술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런 예는 다 임진왜란 뒤의 간행물이다. 平秀吉은 우리 나라의 철천의 원수로서 종묘사직의 치욕과 생명의 혈육에 끼친 고통은 만고에 없었던 변고이다. 우리나라 臣民 중 그의 고기를 찢어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위로는 사대부로부터 아래로는 천민에 이르기까지 ‘왜놈’이니 ‘왜적’이니 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²⁶⁾

이 글은 1719년에 사신으로 갔던 申維翰이 對馬島의 서기인 雨森東의 향의에 답변하여 말한 부분이다. 雨森東은 조선 사람들이 그들의 문집에 일본인을 ‘왜놈’이니 ‘蠻酋’로 표기하고 있고, 사신의 하인들조차 일본인을

26) 申維翰, 『海遊錄』 12월 22일.

왜놈으로 부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자신들이 조선인을 사모한다는 뜻에서 '唐人'이라 부르는 것에 비한다면 형평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유한은 일본인을 '왜놈'으로 부르는 것이 조선과 일본 간에 과거 역사에 의한 민족정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신유한의 글은 임진왜란 후 거의 백 년이 지났음에도,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여전히 상존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근거는 전통적인 화이론에 있다.

2. 선입관에 따른 즉물적 판단

사행도 일종의 여행인 이상 출발 전에 준비가 필요할 것인 바 특히 이국으로 여행을 떠나려 할 때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사행단에 선발된 것이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국에 대한 실정도 파악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제반 준비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일본을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일본에 관한 문헌도 상람하고, 소명받은 임무의 성사를 위해 준비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전기 사행록의 작가들은 이국으로 여행한다는 설레임과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일본으로의 사행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신민의 입장에서 왕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간다는 식의 느낌이 문면 곳곳에서 표출되어 있다.

왕명을 받들고 한양을 뜨는데
말 머리에 누른 버들의 경치
총총히 가는 길 남은 알지 못하리
임금 말씀 잘 전하고 명광궁에 복명하리

特奉綸音出漢陽
馬頭住致柳初黃
此去忽忽人未識
好傳王語奏明光²⁷⁾

중대한 걸음에 오래 지체하기 전될 수 없으니
만 리의 바람돛대 어느 날 출발하나
밤중의 피리소리 절류곡을 들겠고
강성 사월에 황매시절 가까웠네
땅이 나뉘매 고향이 멀어진 줄 알겠고

嚴程不耐久遲廻
萬里風帆幾日開
晝角三更聞折柳
江城四月近黃梅
地窮始覺鄉關遠

27) 『일본행록』, 「1420년 윤정월 15일 路上에서」

하늘이 다 되매 바다 넓은 줄 알겠구나
 나의 가고 머무름이 운명으로 정해졌으니
 돌아올 기약은 북쪽 기러기 울 때 일임하세

天盡方知海宇恢
 坎止流行應已定
 歸期一任塞鴻來²⁸⁾

앞의 것은 송회경의 시이고 뒤는 김성일의 시이다. 위 시에는 마치 생사를 예견하지 못하는 지역에 홀로 던져진다는 두려움과 그러면서도 부여받은 임무는 반드시 성사시키고 말겠다는 책임감이 교차되어 있다. 두 사람의 시에는 모두 공인으로서의 의무감이 강하게 드러나 있으나 김성일의 시에 그 비장미가 훨씬 더한 편이다. 이는 사행 당시의 조선과 일본 사이에 전운이 감돌던 점을 생각하면 사지를 향해 간다는 느낌이 그렇게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그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것이라기 보다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것과, 믿을 수 없는 민족과 조우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견문이 제대로 될 리 없었을 것이고, 또 한다 해도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이해하는 卽物的인 수준이 되고 만다. 여기에서 일본을 야만시하는 선형적 지식과 실제 일본인의 非禮를 경험하고 나면 이러한 생각은 더 하게 된다. 어떻게 하든 부여받은 소명을 빠른 시간안에 해결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뿐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그들이 바라본 일본의 풍속은 표피적인 것에 머무르고 만다.

『日本行錄』에는 송회경의 일본에 대해 간결하고 유연한 입장이 드러나 있으나, 그쪽의 풍속을 이해하는 데는 전통적인 華夷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는 일본을 '奴'로 호칭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일본의 문물과 풍속을 이해하고 있다. 즉, 그는 처음부터 일본을 오랑캐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이 접하게 되는 일본의 풍속에 대해서 '이해와 존중'의 태도보다는 '야만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습속' 쯤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

이 나라의 풍속은 여자가 남자보다 배나 많기 때문에 別店에서 음란한

28) 『海槎錄』 권 1, 「十六日次松堂韻」

풍속이 크게 유행하여, 노니는 여인의 태반은 사람을 보면 길을 막고는 자기 가라고 청하는데, 옷을 잡아끌기까지 한다. 店內에 들어가 그 돈만 받으면, 비록 대낮이라도 원하는 대로 따른다. 대체로 그 고을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강과 바다에 접하고 있어서 맑은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자못 얼굴이 예쁘다.

또 남자 나이가 20세 이하로서 절에서 학습하는 자는 僧徒가 그의 눈섭을 깎고는 먹으로 눈섭을 그리며, 입술에 붉은 칠을 하고 낮에 분을 바르며 채색 옷을 덧어쓰게 하여, 여인의 모양을 만들어서 거느리고 있다. 왕이 또한 미소년을 궁중에 뽑아들여 宮嬖이 비록 많더라도 이 소년을 가장 사랑하므로 나라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본받는다.²⁹⁾

위 내용은 일본 性風俗의 일단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매춘이 상품화되어 공공연하게 성행되고 있으며, 궁궐에서 男娼을 선호한다는 일본의 풍속이 조선 유학자의 눈에 기이하게 비쳐졌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중국에서도 남창이 있었고, 고려조에서도 성풍속이 문란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이러한 풍속에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당시의 주자주의적 세계관에서 볼 때 이는 금수의 행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이러한 풍속에 유독 관심을 가진 것은 풍속의 기이함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일본의 오랑캐적인 풍속을 확인하고자 한 송희璟의 문화우월주의적인 태도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그의 시에는 여러 군데에서 일본인을 禮와 도덕이 없는 민족으로 묘사되어 있고, 이를 크게 개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그가 일본인의 본질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한 데도 원인이 있겠고, 상호주의의 입장 보다는 화이론을 생각의 기저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 이유를 알려 하지 않고 즉물적으로 판단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태도는 김성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정도는 훨씬 더한 셈이다. 『해사록』에 투영된 학봉의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오직 하나의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는 객관적 실체로서 일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마음 속에 고착화되어 있는 정형화된 이미지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나 사물은 모두 현상 그 자체로서만 존재할 뿐 학봉의

29) 宋希璟, 「日本行錄」, 6월 17일.

마음 속에 그려지는 것은 오직 夷, 蠻 뿐인 것이다. 따라서 그의 눈에 비친 일본은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현상 그 자체에 불과한 것이다.

오랑캐가 바다의 동쪽 뿔에 생겨났는데 성질이 교만하고 구역이 다르네 되놈 가운데 네가 가장 간교한데 벌집처럼 바다가에 의지했네. 마음은 이리와 같고 음성은 울새미와 같고 벌의 꼬리에 독이 있어 가까이 하기 어렵네. 키처럼 걸터 앉고 쭈그리고 앉는 것을 예절이라 하고 말섬의 저울대도 성인의 법이 아니네. 마소에 옷입힌 것이며 또 몸에 무늬를 놓았으며 남녀가 구별없으니 어찌 동족을 물으랴. 허한 데를 습격하고 약한 자 능멸하고 남의 불행 이롭게 여기고 위태로움을 타서 덤비네. (이하 생략)	有夷生在海東角 性氣驕亢區域別 氏羌之中爾最黠 水渦蜂房依海窟 心如狼子音如鴉 蝨尾有毒難可押 箕踞蹲坐是爲禮 斗斛權衡非聖法 馬牛襟裾且文身 男女聚處寧問族 擄虛凌弱遂狼許 利災乘危爭豕突 ³⁰⁾
--	---

위 시는 차천로의 시를 차운하여 일본의 지세와 민족성, 풍습, 기질 등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시를 통해 볼 때 학봉은 일본에 대해 어느 것 하나 긍정적으로 본 것이 없다. 시가 객관을 주관화시키는 이미지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주관은 객관적 가치의 물이해나 객관 그 자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굳이 객관적 대상을 시의 소재로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히 서경을 소재로 할 경우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학봉이 본 일본은 있어서는 아니 될 나라이며, 그 민족 또한 존재해서는 아니될 금수보다 못한 존재인 것이다. 일본의 객관적 실체를 인정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눈 앞에 보이는 일본에 대한 실체를 의식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선입전에 따른 즉물적 판단이 아닌가 한다.

조선전기 사행록에 나타난 이러한 인식태도는 후기 통신사행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다. 통신사행은 비록 임란 이후 민족적 감정이 격앙된 시점에서 파견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나라가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을 보다 탄력적인 시각에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행문학은 사행의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나름의 한계가 있다. 즉 여행의 일정

30) 『海槎錄』, 「次二十八宿體」

과 경로가 한정되어 있고, 상대하는 사람이 일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은 관계로 표피적인 관찰과 느낌을 받을 개연성이 짙다. 이에 비해 임란 포로실기는 통신사행과는 반대적 조건에서 일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분석적이다. 포로실기의 작가들은 비록 제한된 지역 이지마는 적어도 3년 이상을 일본에 머물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일본의 풍속과 제도, 의례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을 따져가면서 이해하고 있다.³¹⁾

3. 대일 인식 준거의 주관성

조선전기 대일 사행문학에 나타난 대일본 인식은 국내의 정치상황과 시대상황, 체험당사자의 인식준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중 개인적 가치관이 앞서 두 조건만큼이나 크게 작용한다. 비록 여행 대상이나 상황과 같은 객관적 조건이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어차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적 가치의 절대성이 우선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행이 1590년(선조 23) 황윤길을 정사로 하여 파견한 통신사행이다.

이 때의 국내 정치상황은 동서봉당으로 인해 양반 관료들의 분열과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주변국 특히, 일본의 사정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에 가까웠다. 주변정세 또한 전쟁이 임박했음을 예감하게 하는 상황쪽으로 치닫고 있었다.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대마도주가 入朝할 때까지도 일본의 정치상황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입조 사신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말았다.³²⁾ 하나의 예를 살펴보자. 1590년 풍신수길의 명을 받

3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채연(임진왜란 포로실기 연구, 박이정출판사, 1995)을 참조.

32) 전쟁의 조짐은 임란 발발 몇 해 전에 이미 예언되고 있었다. 1587년 橘康廣이 일본국사의 자격으로 來朝하여 豊臣秀吉이 곧 일본을 통일할 것과 조선은 기강 해이로 곧 망할 것이라는 암시를 준 바 있고(『선조실록』, 선조 20년 9월 정해), 1588년에는 일본 국사가 일본으로 향하면서 통신사의 파견을 거절하였으므로 일본이 이에 응징할 것이라는 것을 말한 바 있고(『선조실록』, 선조 21년 12월

은 대마도주 平調信과 玄蘇 등이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 조선을 방문하면서 진상품으로 조총과 칼 등을 가져왔다. 그러나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그것의 가치를 모른 채 軍器寺에 방치하고 말았다. 이는 일본의 군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일본의 내부정세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예견된 전쟁을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³³⁾

이런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시 파견된 1590년의 통신사행은 역대 대일 사행 중에서 가장 주요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임무는 다름 아닌 일본의 정세 및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복명하는 데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같은 조건 속에서 파견된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서장관 허성의 복명 내용이 다르다는 데 있다. 이들의 상반된 복명내용에 대해서는 흔히들 東西朋黨의 산물로 이해하나³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개개인의 가치판단의 준거가 서로 다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황윤길과 허성의 복명과 김성일의 것이 달랐는데 이는 전적으로 김성일 개인이 가지고 있던 유교적 명분론과 화이관, 그리고 결벽증에 가까운 편협한 기질 때문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김성일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허성은 동인의 영수였던 許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동인이었고, 황윤길 역시 서인이라기 보다는 중도적 색채를 띤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붕당의 논리에서 본다면 허성 또한 김성일과 같은 복명을 했어야만 되지만 결과는 그렇지가 않다. 김성일의 의견이 수용된 데는 정권주도세력이 동인이라는 데도 한 이유가 있겠으나,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전쟁 준비로 인한 과도한 조세 및 부역의 부가로 혼란해질 민심을 걱정하여 곧 닥쳐올지도 모를 전쟁을 의식적으로 피하고자 했던 당시의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럼 왜 김성일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쟁의 조짐이 없다고 복명했을까. 柳成龍의 『懲愆錄』에는,

을해), 1591년 일본에 파견된 김성일 일행에게 가도임명의 사실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선조실록』, 선조 24년 3월 정유) 등이 그러하다.

33) 柳成龍, 『懲愆錄』卷一, 참조.

34) 金承禹, 앞의 논문, 176-190쪽 참조.

“나(김성일)라고 어찌 일본이 침략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윤길의 언동이 너무 중대하여 중앙과 지방의 민심을 현혹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명하려 했을 뿐이다.”³⁵⁾

고 적고 있지만, 이외에도 황윤길과 김성일 간의 인간적인 갈등과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이점은 『해사록』에 나타나 있는 황윤길과 김성일의 서찰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 이 글에 따르면 김성일은 使行儀禮를 두고 황윤길과 많은 마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황윤길은 일본측의 接伴行爲를 수용해 주는 쪽이었고, 김성일은 불경이라 하여 수용하지 않는 쪽이 많았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國書 내용을 둘러싼 마찰³⁶⁾ 같은 중요한 일로부터 宣慰使³⁷⁾를 기다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하는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있었다. 이럴 경우 허성은 몇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황윤길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이었다. 사신들 간의 이러한 마찰은 전통적인 화이관에 바탕한 유교적 예법과 민족적 자존심을 중시하는 김성일의 원칙주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그는 철저히 禮를 기준으로 하여 일본을 평가하였는 바 「偶書」란 시에서

禮義는 어찌 夷와 中華가 따로 있으랴	禮義何嘗有 夷夏
그것을 가지면 중화가 되고 그것이 없으면 이가 되네	存能爲夏去爲夷
생사 때문에 나의 절조 변치 마소	莫將生死渝吾節
이 道는 종래로 떠날 수 없느니라	此道從來不可離 ³⁸⁾

라 하여 예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됨을 말하고 있다. 학봉의 이러한 생각은 완고할 정도로 고집스런 것이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성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정사 황윤길의 행위는 조선을 대표한 관리로서의 체모를 세우지 못한 것으로 비취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사신으로서의 김성일의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 몸이 비록 보잘 것 없으나 그래도 대국의 사신입니다. 누구도 몸은 가볍게 할 수

35) 柳成龍(이민수 역), 『懲毖錄』 권1, 을유문화사, 24쪽.

36) 金成一, 『海槎錄』, 「擬答宣慰使書」.

37) 『海槎錄』, 「答上使書」

38) 『해사록』, 「偶書」

있어도 나라는 가볍게 할 수 없으며, 몸은 욕되게 할 수 있어도 왕명은 욕되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몸과 나라는 사실 두 가지로 볼 수 없는 것이니, 몸이 가벼워지면 나라도 가벼워지며, 몸이 모욕을 당하면 왕명도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신인 사람이 어찌 감히 그 몸을 가볍게 하여 나라를 가볍게 하고 왕명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³⁹⁾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신은 왕의 대행자란 논리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러나 학봉은 이 원칙을 지나치게 중시한 결과 일본의 실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실패하고 만다. 일본측의 사신에 대한 非禮를 조선 왕에 대한 비례로 확대 해석한 나머지 세세한 부분의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논박한 것이다. 그 결과 자신의 소임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실정을 탐지하는 보다 본질적인 일은 소홀히 취급하고 만다. 학봉의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自民族優越主義 사상도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의 『大明一統志』의 잘못됨을 지적하며 『朝鮮國沿革考異』와 『風俗考異』를 집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어쨌든 사행이라는 공통의 체험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용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 대상은 상당히 왜곡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임란 이전의 대일본 인식은, 김성일이 가장 극단적인 부정론을 가지고 있었고, 송회경은 전통적인 화이관을 유지하는 수준, 신숙주는 전략적인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일본을 파악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통시적인 시대 흐름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대일본 체험의 시기가 시대적·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으로 개인적인 성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IV. 마무리

본 연구는 조선전기 사행록에 나타난 대일 인식이 어떠하였는지를 송회

39) 『海槎錄』, 「書書狀官答」

경의 『일본행록』, 신숙주의 『해동제국기』, 김성일의 『해사록』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사행록은 여행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감회를 적은 것이지만 사행 자체는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전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행이 이루어지던 당시의 조선-일본 간의 정치적 상황을 검토하였다. 조선은 명나라의 중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수용하면서 중국과는 사대의 관계를 일본과는 교린의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일본과의 교린은 표면적으로는 대등교린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기미교린이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에 파견되는 사신들은 일본에 대해 정치적·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점 때문에 일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둘째, 일본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은 전통적인 화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는데 이는 집단적 선형성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김성일의 『해사록』에서 경멸적인 태도로 나타나고, 송회경의 『일본행록』에는 기존의 화이관을 반영하는 수준인 반면에 신숙주의 『해동제국기』만은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조선전기 사행록은 통신사행록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여행에 대한 기대나 흥분감 보다는 왕명을 수행한다는 관인으로서 태도가 매우 강하게 드러나 있다. 때문에 서술의 초점이 개인 서정의 표출 보다는 임무 수행의 목적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맞추어져 있었다. 그 결과 일본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은 하지 못한 채 즉물적으로 판단하는 피상적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넷째, 일본의 실체에 대한 판단 준거는 개개인의 가치관이 국내의 정치 상황이나 국제적인 상황보다 선행되었다. 이 점은 김성일의 『해사록』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났는 바, 체험상황의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수용태도의 주관성이 객관적 실상을 오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몇 편 되지 않는 사행록을 두고 내린 단편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선전기 사행록이 후기 통신사일기에 비해 크게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 번쯤 집고 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조선조

문학에 나타난 일본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전기 사행록과 임란 포로실기, 그리고 후기 통신사일기를 통시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이 따라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본측 문사들의 눈에 비친 조선관도 아울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조선조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중 小我的인 것이 없지 않았음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음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탁견을 가진 많은 분들이 바로잡아 주셨으면 한다.